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1 -
“도서관 회원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 공약 발표

- 문화·평생학습·동아리 등 역할 다양해진 ‘공공도서관’ ... 운영 주체 따른 서비스 분리, 불편 해소하고자 도입된 책이음, 책바다 서비스에도 이용자 불편 여전
- 광역 지역 중심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 개선 공약, 광역·기초 지자체 및 교육청 연계 통해 한 장의 회원카드로 거주 광역사도 내 어디서든 도서 대출·반납 가능

더불어민주당

나를 위해, 이재명 소확행 공약81

한번 가입에 모든 광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반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8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운영 주체에 따라 분리된 회원카드 및 도서 대출, 반납 등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현재 1,172개로 과거 도서의 열람과 대출 등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독서동아리나 평생학습, 각종 여가 활동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교육청,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각각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서비스의 상호 연결도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다.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회원카드의 경우 도서관별로 발급이 필요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해야 한다. 운영 주체가 다르면 도서관의 상호 대차도 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책이음(전국 공공도서관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책바다(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지만 서비스 이용이 간편하지 않고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가입으로 모든 광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운영 주체 중심의 현행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광역 지자체가 교육청 및 기초 지자체와 연계, 협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도서관 이용자는 한 장의 도서관 회원카드로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 내 어느 도서관에서나 도서 대출과 반납,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이용의 걸림돌이 없는 ‘모두의 공공도서관’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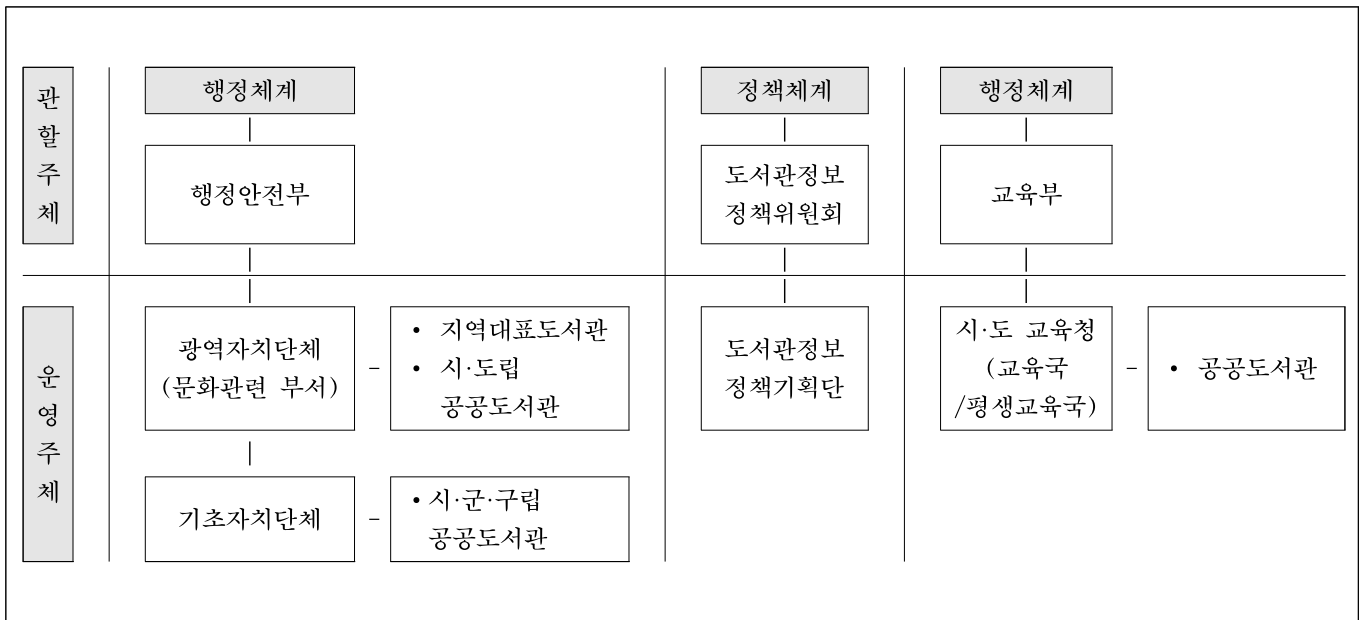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 Q&A 및 참고자료

Q. 공공도서관 정책부서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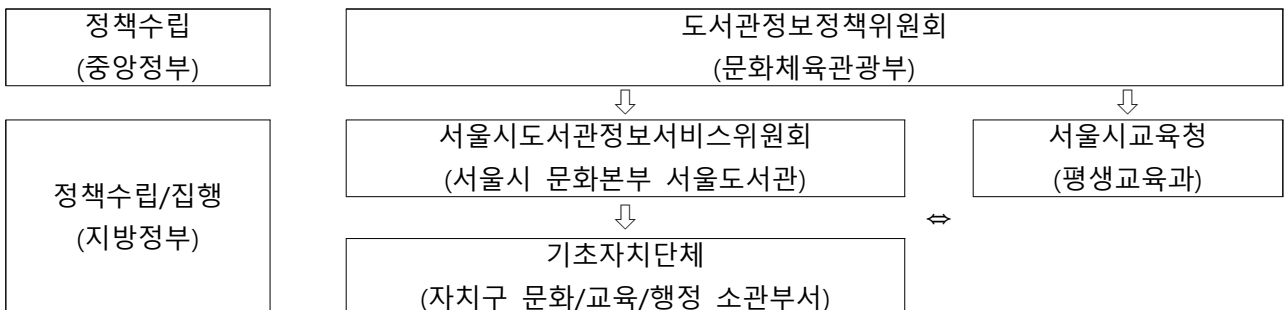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정책

- 공공도서관 정책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국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며 자문기구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음
- 공공도서관은 일제강점기 이후 사회계몽기관으로 운영된 영향으로 광역교육청이 설립·운영하였으나 1995년 「지방자치법」에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고유사무가 명시되어 현재 광역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건립·운영 중임
- 공공도서관 행정 및 정책 체계



○ 국가 차원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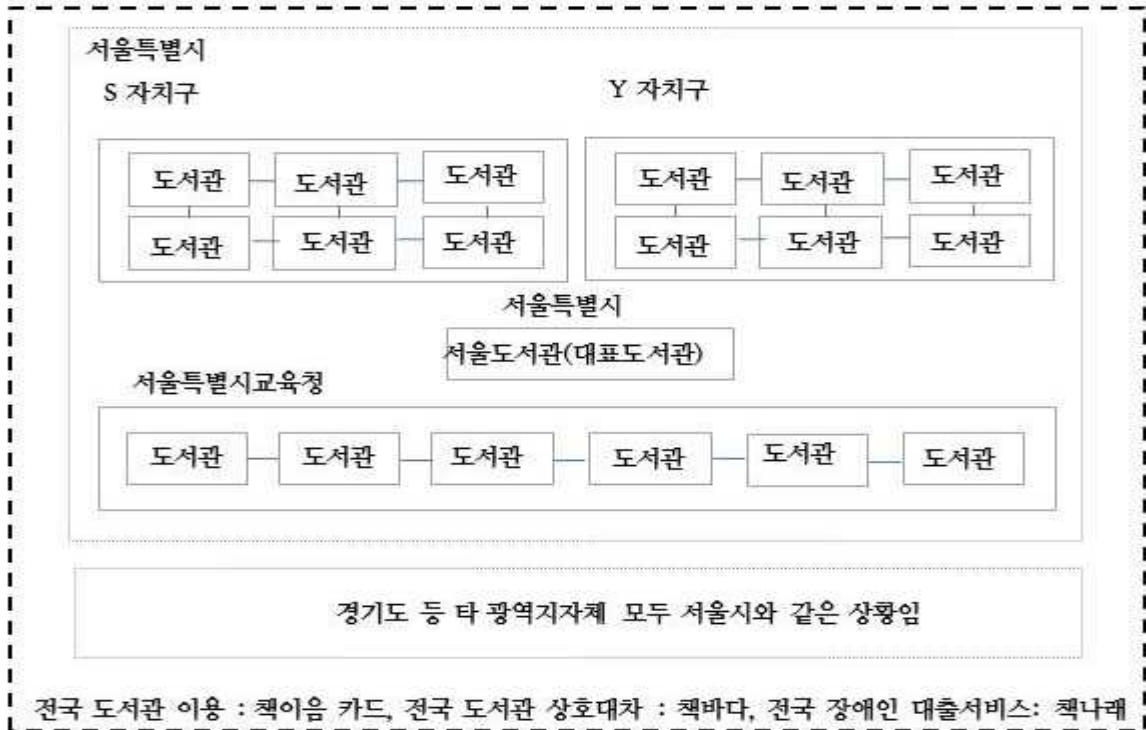
-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 교육청이 별도로 정책 집행하는 구조임
- 광역 대표도서관을 통해 정책 전달은 하나, 정책집행의 권한은 없음



Q. 광역시·도 공공도서관 이용의 문제점

○ 광역시·도 내 공공도서관 서비스 현황

- 현재 광역시도 내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별, 교육청별로 회원 가입 및 상호대차가 가능하며 자치구와 서울 대표도서관(광역), 교육청 간 상호대차가 불가능한 상황
- 이로 인하여 자치구, 광역, 교육청별로 회원카드를 만들어야 하나, 상호대차 서비스를 받으려면 '책바다' 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함



- 아래 사진은 은평구에 사는 개인사업자가 운영 주체별로 다른 도서관 이용 규정, 운영 주체 간 상호대차서비스 불가 등으로 5장의 도서관 회원카드를 소지하였으나, 책바다 서비스의 이용 어려움을 하소연한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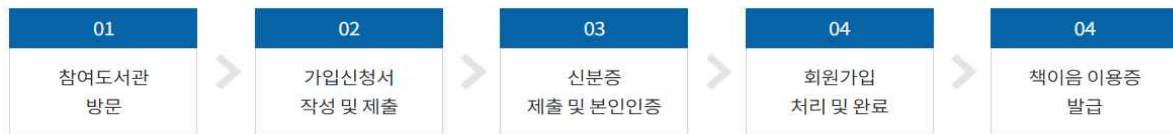
Q. 도서관 책이음, 책바다 서비스란?

○ 책이음 서비스

- 이용자가 하나 이상의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회원 가입한 도서관에서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 후, 타 도서관에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이용 가능
- 책이음이용증을 소지한 이용자가 타 도서관에 처음 방문한 경우, 자동인증처리를 거쳐 이용
-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도서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상호대차 서비스는 이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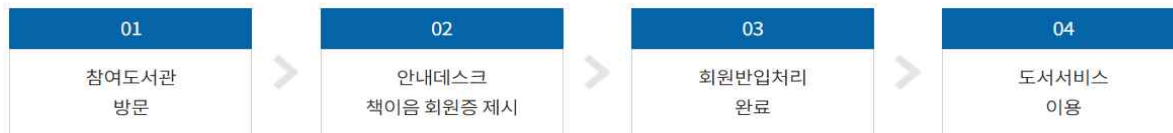
☑️ **신규회원**: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처음 가입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 도서관 회원으로 처음 가입: 자관 회원 가입 및 책이음 회원으로 전환 신청
 - 이미 도서관 자체 회원: 책이음 회원으로 전환 신청
- (※ 기존 자관 회원증 또는 신분증 필히 지참)



☑️ **기존회원**: 타 도서관에서 이미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한 국민 누구나

- 책이음 이용증을 제시하여 책이음 회원정보를 방문 도서관으로 반입 처리 받음
- (※ 책이음 이용증 필히 지참. 단, 자관 규정에 따라 신분증 제시 요청 가능)



○ 책바다 서비스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이용하는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도서관 자료공동 활용 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자관 이용자 우선이거나 도서관 사정에 의해 자료 제공이 불가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
- 책바다 참여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속 공공도서관 담당자가 회원 승인을 하면 책바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료 신청



Q. 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 법·제도의 개선

- 「도서관법」,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서비스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살펴 충돌되는 부분 개선 필요

○ 데이터센터 설치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 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 연동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대출·반납 및 상호대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이용자가 많은 서울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고려

○ 공공도서관 협력·지원 거버넌스 구축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원주의에서 공공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추진체계 혁신

Q. 기대효과는?

○ 공공도서관 이용 불편 해소로 독서인구 증대

- 공공도서관 이용 문턱을 제거함으로써 독서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자-출판-서점 등 책문화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
- 운영 주체 중심 도서관 서비스에서 지역 중심 도서관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도서관 장서 활용의 극대화 가능
- 독서동아리 활동, 평생학습 강좌 수강 등 국민의 지적 역량 증대 기대

○ 공공도서관 정책 추진체계 개선 효과

- 수십년간 공공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의 난제였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로 국민의 도서관 이용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다원주의 환경에서 협력 기조 도모
- 시민의 요구와 근거에 기반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발굴보다 공급자 중심의 관료적 공공도서관 운영 패러다임 변화

표 1. 공공도서관 운영 주체별 현황

(단위: 개관)

구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사립	합계
	광역시 ¹⁾	기초			
서울	1	160	22	5	188
부산	1	30	14	2	47
대구	0	27	9	8	44
인천	9	37	9	-	55
광주	3	15	6	-	24
대전	1	22	2	-	25
울산	1	14	4	-	19
세종	0	11	1	-	12
경기	0	271	11	4	286
강원	0	37	22	-	59
충북	0	34	15	1	50
충남	1	43	19	-	63
전북	1	43	18	1	63
전남	1	47	22	1	71
경북	1	40	28	-	69
경남	1	46	27	1	75
제주	1	15	6	-	22
합계	22	892	235	23	1,172

표2. 전국 공공도서관 회원 등록자 수

(단위: 명)

구분	회원 등록자 수	구분	회원 등록자 수
서울	6,082,118	강원	438,559
부산	1,505,122	충북	736,369
대구	1,232,483	충남	790,621
인천	1,546,658	전북	720,544
광주	699,771	전남	862,413
대전	2,840,449	경북	813,654
울산	663,580	경남	1,292,606
세종	57,087	제주	344,479
경기	6,562,431	합계	27,188,944

1) 대구, 세종도서관은 2021년 하반기 개관하여 통계에 미반영됨